

박엽(朴燁)에 대한 기억의 변화 재론

이은주*

- I. 서론
- II. 18세기 후반, 19세기 박엽 일화의 유형
- III. 18세기 평안도민이 기억한 박엽의 모습
- IV. 박엽의 사당으로 본 평안도민의 시선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인조반정 직후 처형된 박엽이 후대에 주로 야담에서 매우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인물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착안점을 이어 박엽의 전승담이 특이한 양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나타난 잡록과 야담에 나타난 박엽의 일화를 크게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 일화 중에서 이전 시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야담에서 박엽의 이미지가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박엽이 평안도 지방관을 오래 역임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평양 읍지와 평양 사인 김점이 쓴 『서경시화』 및 『칠용냉설』에 수록된 박엽 관련 기록을 통해 후대 이야기의 원형으로 보이는 일화들을 확인했다. 특히 야담에서 ‘천인(千人)’을 죽이라는 예언은 박엽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의 별칭이 ‘천인’인데 박엽이 이를 천 명으로 오해했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지역민이 편집한 『칠용냉설』에는 박엽이 처형을 남발하게 된 이유가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이 예언을 오인했기 때문이라는 내용만 있다. 곧 평안도 지역에서 박엽의 학정은 기정사실이며 이들은 학정에 시달렸는데, 후대에 이들이 역설적이게도 박엽의 행동을 해명하는 일화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박엽의 처형 이후 평안도 지역민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18세기에 지역민이 박엽의 사당을 비공식적으로 건립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심노송의 『대성산신묘기』를 보면 박엽의 사당은 처형 직후 원한을 가진 지역민이 박엽의 시신을 난도질하고 시신을 수습할 수 없게 한 결과 박엽의 혼령이 떠도는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이 시기 지역민이 박엽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연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박엽의 학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박엽은 관찰사를 공식적으로 제향하는 생사당이 아니라 복을 빌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음사’에 모셔졌다. 이렇게 산신이 되면서 원래 작고 여성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박엽은 산신으로 거듭나 평안도의 수호신으로, 나아가 이후 허구적인 서사 속에서 신이한 능력을 가진 무장의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박엽이 후대 야담에서 비현실적이고 신이한 인물상으로 변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평안도 지역민이 박엽이 처형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참혹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죄의식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박엽은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핵심어: 박엽, 평안도 지역민, 박엽 사당, 기억의 변화, 신이한 능력, 장수의 형상

1. 서론

광해군과 동서지간인 박엽(朴燁, 1570~1623)은 인조반정 직후 갑자기 처형됨으로써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소소한 이야깃거리로 남았다. 처형의 명분은 평안감사로 있으면서 학정(虐政)이 심했다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광해군에서 인조로 권력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숙청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행정과 군사면에서 유능한 인재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엽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도 이해관계나 친소관

계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나왔으며, 특히 후대로 가면 후금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야담도 등장했다.

이 점에 주목한 선행 연구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이미 박엽의 이미지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며 19세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어 처형 직후의 평가와 매우 상반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는 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구비 문화 향유자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결과이며 그 바탕에 중화주의적 가치가 놓여있다고 해석했다.¹⁾ 박엽을 이인(異人)으로 형상화한 자료를 18세기 후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올라가서 박엽과 동시대 인물인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찾기도 한다. 관심사의 차이는 있지만 박엽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처형 직후 박엽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과장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박엽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²⁾

그런데 숙종대 이후 대명의리론이 강화되면서 전쟁 당시의 여러 기억이 변조되거나 재구성되는 사례가 박엽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³⁾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들에 대한 기억이 후대에 달라질 때 궁극적인 목표가 재평가에 있는 경우, 서사는 현실적인 맥락 속에 자리하게 된다. 반면 박엽은 주로 야담 자료에서, 또 대부분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사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이것을 곧바로 박엽에 대한 재평가로 연결시킬 수 없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박엽이 1864년에 공식적으로 복관되었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사

- 1) 엄태웅, 「박엽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그 의미-1623년 처형전후부터 1864년 관직회부전후까지의 기록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45, 우리어문학회, 2013, 137~180면. 이 논문에서는 병자호란과 청 건국 이후 비교적 낮은 계층인 구비전승의 향유자들이 점차 이전에 안정적으로 변방을 지켰던 박엽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비 전승의 방식으로 박엽을 옛 중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상상했다고 해석했다.
- 2) 박엽의 상반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에서도 주목했는데, 박엽의 문학에 집중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승수, 「약창 박엽론: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137~174면; 이승수, 「약창 박엽의 시세계」, 『한국시기문화연구』 43, 한국시기문화학회, 2019, 57~79면. 박엽의 재평가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 홍정덕, 「박엽 생애 평가의 재검토」, 『경기향토사학』 2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5, 133~180면.
- 3) 가도전투, 임경업, 최효일 등도 후대에 기억이 달라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서동윤, 「1637년 가도 전투를 둘러싼 기억의 전승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2015, 25~53면; 이은주, 「김제학의 관서 죽지사에 나타난 역사 인식」,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021, 271~304면 참조.

면이 언제나 해당 인물을 재평가하고 당시 처벌되었을 때의 죄상을 무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야담에서 박엽이 긍정적으로 그려진다고 해도 박엽의 포악하고 탐욕적인 행위 이면에 어떤 대의명분이 놓여져 있었다거나 지역민에게 원성을 샀던 축성 자체를 긍정하는 양상이었던 것도 아니다.⁴⁾

또 ‘구비문학 향유자’의 ‘중화주의적 가치’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엽과 전란을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 평안도 관찰사의 전쟁 억제력이 설득력이 있는가와 별개로 박엽이 1623년 처형된 이후 정묘호란(1627)이나 병자호란(1636) 전까지 여러 명이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했는데⁵⁾ 이들에게 전쟁 억제력의 공이나 전쟁 발발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박엽에 대한 전승담에서의 핵심은 인조반정 이후 처형된 북인계 인물 중에서 왜 유독 박엽을 신화화하는 양상을 보이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박엽 관련 자료들의 주요 내용들을 재정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18세기 후반, 19세기 박엽 일화의 유형

선행 연구에서의 착안점은 1646년 주청사(奏請使) 이덕형(李德炯)을 위시한 사행단의 기록이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이 기록한 보고서로, 18세기 초에 간행된 『화포조천항해록(花浦朝天航海錄)』에는 당시 화제였던 박엽의 처형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목이 19세기에 나온 이본 『조천록일운항해일기(朝天錄一云航海日記)』나 2종의 한글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곧 처형 직후 박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조를 이루었으나 19세기로 가면 평가의 기조가 달라졌고 이런 점이 이 시기

4) 고종 연간에는 총 125회 사면이 있었다. 조선시대 사면의 이유는 경사나 국가의 길흉화복과 관련해서 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시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사면 자체가 인물의 재평가를 뜻하는지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일 것이다. 김인호, 『고종 순종 시기 恩賜 제도의 운영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5~57면 참조.

5) 1623년부터 1636년까지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한 사람은 金基國, 李尙吉, 尹暄, 金起宗, 金時讓, 閔聖徽, 張紳, 洪命壽이다.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⁶⁾ 실제로 박엽의 경우 사후에 여러 스토리가 생겨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박엽의 모습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와 그밖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박엽 일화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1) 유년기 박엽의 비범함	
이원명(李源命, 1807~1887) 『동야휘집(東野彙輯)』	박엽이 지붕 위에서 오줌을 누었음. 박엽이 이백 리 떨어진 외가가 있는 목천(木川)을 하루 만에 갔음.
2) 박엽의 신이한 능력	
이희준(李羲俊, 1775~1842) 『계서야담(溪西野談)』	평안감사 박엽이 액운이 있을 아이를 폐사(廢寺)로 보내 닭이 울기 전까지 호피를 뒤집어쓰라고 했고, 아이는 그 절에서 호랑이로 변하는 노승을 만나 호환을 벗어나게 되었음.
3) 처형 당시의 모습	
홍직필(洪直弼, 1776~1852) 『매산집(梅山集)』	후임 관찰사 김신국이 백성들에게 박엽에 대한 원한을 갖는 것을 허락했고 도원수 한준겸(韓浚謙)은 난동을 부린 자들의 우두머리를 처형했음. 조정에서는 김신국(金薰國)에게 죄를 내리고 박엽이 고향에 묻히는 것을 허락함.
이원명(李源命, 1807~1887) 『동야휘집(東野彙輯)』	구인후(具仁厚)가 박엽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막은 뒤 시신을 관에 넣고 이송하였는데 상여가 중화군에 왔을 때 구인후가 마침 어영대장으로 임명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 틈에 이들이 시신을 모두 훼손하고 가버렸음.
4) 법수교 시	
황윤석(黃胤錫, 1729~1791) 『이재난고(頤齋亂藁)』(1770)	계해년에 박엽이 자기의 운명을 알고 법수교 시를 지음.
5) 후금에서 두려워한 박엽	
이중환(李重煥, 1690~1756) 『택리지(擇里志)』	박엽이 평소 첩자를 잘 썼으며, 구성(龜城)에 갔을 때 사람을 시켜 청병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 분량이 딱 맞자 칭나

6) 임태웅, 앞의 논문, 142~147면.

7) 임태웅의 논문에서도 19세기 박엽 관련 자료를 ① 일상 속 비범한 면모, ② 후금 세력을 압도하는 장수의 면모, ③ 절의를 지키는 충신의 면모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논문의 유형 분류를 본고의 유형 분류와 비교해보면 ①은 1)과 동일하고 ②는 5)에 야담 외 전언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③은 6)과 7)을 아우르고 있다. 다만 6), 7)의 내용을 '절의'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유형 분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시 유형을 정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이 일화 모두가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일화 또는 부분적인 화소의 경우 등장하는 시기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또 선행 연구의 유형 분류에서는 본고에서 정리한 6)과 7)을 함께 묶었지만 두 일화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두 내용을 별개로 나누었다.

	라 장수가 놀라서 포위를 풀고 가버렸음.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박엽이 자객을 보내 건주 오랑캐 추장 모자의 구슬을 훔치자 오랑캐가 박엽을 두려워하여 복종했으며, 박엽은 죽을 때 “왜 나를 10여 년만 살려두지 않는가”라며 탄식했음.
황윤석(黃胤錫, 1729~1791) 『이제난고(頤齋亂藁)』(1770)	박엽이 누르하치 모자를 훔친 일과 오랑캐가 보낸 호랑이가 죽을 두른 사람을 박엽이 미리 알고 있는 것에 놀라 후금에서 박엽을 두려워함.
성대중(成大中, 1732~1809) 『청성잡기(靑城雜記)』	정충신(鄭忠信)이 안현(鞍峴) 전투를 이기고 물러난 뒤 전투는 다행히 이겼지만 작년에 박엽을 죽이고 금년에 이팔을 죽였으니 북쪽 오랑캐는 누구를 시켜 방어하게 하나고 탄식함.
이희준(李義俊, 1775~1842) 『계서야담(溪西野談)』	- 용골대와 마부대가 올 줄 미리 알고 중화(中和)의 구현(駒峴)에 미리 가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자 이들이 놀라서 사라졌음. - 밤에 기생을 데리고 가서 오랑캐 장수(누르하치)를 검술로 이긴 뒤 같이 술을 마셨고 이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애걸하여 박엽이 허락해주고 돌아옴.
이원명(李源命, 1807~1887) 『동야휘집(東野彙輯)』	- 용골대와 마부대가 올 줄 미리 알고 중화(中和)의 구현(駒峴)에 미리 가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자 이들이 놀라서 사라졌음. - 밤에 기생을 데리고 가서 오랑캐 장수(누르하치)를 검술로 이긴 뒤 같이 술을 마셨고 이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애걸하여 박엽이 허락해주고 돌아옴.
6) 계해년(1623) 박엽의 선택	
이중환(李重煥, 1690~1756) 『택리지(擇里志)』	청국과 결탁하지 않으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자 박엽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인조반정 때 처형되었음.
이희준(李義俊, 1775~1842) 『계서야담(溪西野談)』	박엽이 후금과 통하는 상책, 반란을 일으키는 중책, 순순히 국명(國命)을 받는 하책 중에서 하책을 선택했음.
이원명(李源命, 1807~1887) 『동야휘집(東野彙輯)』	박엽이 후금과 통하는 상책, 반란을 일으키는 중책, 순순히 국명(國命)을 받는 하책 중에서 하책을 선택했음.
7) 천인(千人)을 죽이라는 예언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천 명을 살리면 잘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천 명을 죽이라는 말로 잘못 듣고 살육을 자행했음.
황윤석(黃胤錫, 1729~1791) 『이제난고(頤齋亂藁)』(1770)	- 젊을 때 혼령으로 온 여인의 시신을 수습해주었고, 천 명을 죽이면 길하다는 예언을 들음. - 김자점(金自點)의 소명이 ‘천인(千人)’이었고 여인의 예언은 김자점을 죽이라는 뜻이었으나 박엽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생을 많이 하는 것에 힘썼으며 광해군 인척의 유씨의

	전황을 말리지 않았으니 박엽이 죽은 것도 당연하다는 설이 전함.
성대중(成大中, 1732~1809) 『청성잡기(靑城雜記)』	평안감사로 있을 때 중국 사람이 일만(一萬)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죽였는데 1만 명을 채우기 전에 처형되었음. 김자점이 그를 미워하여 죽였는데 김자점의 어릴 때 자(字)가 ‘일만(一萬)’이었음.
이희준(李羲俊, 1775~1842) 『계서야담(溪西野談)』	능성군 구인후(具仁廔)가 박엽의 막하에 있으면서 반정 거사에 참여하였는데 하직할 때 박엽이 전별금으로 붉은 모직물을 주었음. 구인후는 명을 받고 박엽을 교수형에 처했는데 행차가 중화에 이르렀을 때 어영대장이 되어 먼저 돌아갔고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박엽의 시신을 훼손했음. 박엽은 소싯적에 천인(千人)을 죽이지 않으면 천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천인’은 구인후의 아명이었음. 인조 군대가 홍전립을 새로 만들어 썼는데 박엽은 미리 알고 구인후에게 줌.
이원명(李源命, 1807~1887) 『동야휘집(東野彙輯)』	소싯적 점에 나온 천인(千人)을 죽이라는 말의 뜻은 ‘천인’이 아명이었던 구인후(具仁廔)를 죽이라는 뜻이었음.

18세기 후반, 19세기 자료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는 이전 시기에 이미 등장한 내용도 있다. 박엽과 동시대 인물인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박엽의 일화 4편이 실려 있다. 박엽은 유몽인 조카 친구였는데 박엽이 행랑채 밖 길가에 서서 지붕 위로 오줌을 뿌리고 있었으며 외가가 목천에 있는데 서울에서 저물녘 떠나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목천에 도착하는 등 비범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와 전란 이후 밤중에 돌아오다가 어떤 여자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잤는데 잠에서 깬 뒤 시체였다는 것을 알고 장사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준 이야기,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시관(試官)으로 온 이경운(李卿雲)과 함께 사냥하러 가면서 미리 망아지에 게 호랑이 가죽을 씌워 놀라게 한 뒤 개똥으로 약을 지어준 이야기,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남편이 있는 여자와 사통한 이야기였다. 위의 표에서 유형 1)은 『어우야담』의 일화가 유전된 것이며 19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화소가 아니다.⁸⁾ 그런데 귀신과 정을 통하는 이야기를 제외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일화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전하지는 않았다.

8) 엄태웅, 앞의 논문, 160~161면. 이 논문에서 『동야휘집』 출전으로 해서 ‘일상 속 비범한 면모’의 항목으로 제시한 내용은 『어우야담』에 수록된 내용이므로 19세기에 새롭게 나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망아지에게 호랑이 가죽을 씌운다’는 모티브가 유형 2)에서 부분적으로 삽입되었다.

유형 3)에서는 박엽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제시했다. 조정남(趙慶男, 1569~1641)의 『속잡록(續雜錄)』에도 도원수 한준겸이 밀지를 받고 와서 박엽을 처형했으며 그 당시 기생들은 박엽이 죽는데도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박엽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시신 훼손을 훼손했다는 것, 신임 감사 김신국이 뼈 일부를 수습한 상자를 들고 오다가 황주(黃州)에서 백성들이 상자를 빼앗아 강에 던진 내용을 나온다. 조정에서 김신국에게 죄를 내리고 박엽의 시신을 고향에 묻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은 『일월록(日月錄)』에 나오며, 『동야취집』에는 구인후가 박엽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어조를 담고 있다.

유형 4)는 박엽의 문집 『약창유고(葯窓遺稿)』에 <계해정월담법수교(癸亥正月踏法首橋)>라는 제목으로도 확인된다. 유형 5)의 이야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약간 변형한 것이다. 박엽은 중국어도 할 줄 알았고 역관들을 통해 진기한 물건들을 사서 왕에게 진상한 적도 있었다.⁹⁾ 치부도 상당히 했는데 전하는 소문에는 누르하치(盧花赤, 老可赤) 모자를 샀다고 한다.¹⁰⁾ 박엽 일화에서 누르하치가 나오는 것은 누르하치 모자를 샀다는 일화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문이 발전해서 유형 5)에서처럼 한편으로는 누르하치의 모자를 훔쳤거나 누르하치와 검술로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로, 다른 한편으로는 좀더 현실성 있게 누르하치가 아니라 용골대와 마부대가 등장하는 일화로 변모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 6)의 경우 박엽은 순순히 왕명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왕명에 따라 처형되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제안한 방책 중 중책(中策)이 군사를 이끌고 조정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조반정 이후 밀지를 내려 평안감사 박엽과 의주부윤 정준(鄭遵)을 곧바로 처형한 명분은 이들이 재물을 수탈하고 탐학을 부렸다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였다.¹¹⁾ 병권을

9) 『光海君日記』 1619년 1월 11일 기사.

10) 『承政院日記』 1791년 4월 25일 기사. “雖以朴燁購得盧花赤帽子事言之, 亦由於多財力之致矣.”

11) 『光海君日記』 1623년 3월 13일 기사.

가진 자리에 있었음에도 처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후대에는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각색된 것이다.

앞의 표에 제시된 황윤석은 『이재난고』 외에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의 『해동이적(海東異蹟)』을 증보했는데 『이재난고』와 『해동이적』에 수록된 일화 중에는 중복된 내용이 많다. 『해동이적』에 추가된 박엽 관련 내용은 앞에 제시한 여러 유형을 망라하고 있다. 누르하치 모자를 훔쳐 귀 통이를 때고 돌려주자 누르하치가 놀랐으며, 호랑이 가죽을 쓰고 온 오랑캐 첩자들에게 음식을 주자 이들이 놀랐다는 이야기, 법수교에서 시를 지은 이야기, 인조반정 이후 박엽을 처형할 때 박엽이 미리 알고 탄식했고 막료들이 처형하러 오는 이들을 베어버리자고 했지만 만류했으며, 인조반정 이후 박엽을 살려두자는 의견을 김자점이 반대해서 처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어느 날 밤 예쁜 여종을 보고 따라갔더니 여종이 술과 안주를 주며 자신과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으니 장사를 치러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천인(千人)을 죽여야 한다고 해서 박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알고 보니 김자점의 아명이 ‘천인’이었다는 이야기, 박엽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르하치가 조선에 쳐들어 왔다는 내용이다.¹²⁾ 여기에서 여종을 따라가서 장사 지내준 이야기는 『어우야담』 내용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해동이적』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박엽의 법수교 시가 우연히 미래 상황과 맞아떨어진 ‘시참’이 아니라 박엽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형 당시 영문을 모른 채 죽었다고 한 적지 않은 자료들과는 달리 『해동이적』에서는 박엽이 이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처형 이유를 묻는다. 이 일화에서 박엽은 병권을 전횡했다는 죄목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 덕분에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형을 남발했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탄식하고 인정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던 박엽의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후금에서 박엽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인조반정 이후 박엽을 처형했을 때 공식적으로 박엽의 죄상을 여러 가지로 열거했음에도 박엽의 친척들이 이런 처형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웠을 것

12) 洪萬鍾, 黃胤錫 增補, 『海東異蹟』, 『補 朴燁』, 『補 朴龜』.

이다.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했던 박동량(朴東亮)의 고손(高孫)이자 <서경감술(西京感述)>을 썼던 박미(朴彌, 1592~1645)는 1638년에 심양으로 사행 갈 때 평양에서 “법수교 가의 물이 오열하며 다시 울음을 삼키네. 십 년 전에 시든 아가위 나무, 옛 눈물 흔적에 다시 눈물 적신다”¹³⁾는 시를 썼다. 박미가 박엽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시로 썼다면, 박미의 증손인 박필주(朴弼周, 1680~1748)는 1735년에 평양을 유람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자주(自註)에서 박엽은 억울하게 죽었으며 박엽이 평안도에서 위업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 박엽은 내 증조부 분서공 박미의 재종형제이다. 인조반정 초에 평안감사로 있다가 처형되었는데 광해군과 뜻을 함께 했고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대북 이이첨과 사이가 좋지 않다. 예전에 (이이첨이) 접반사로 평양을 왔다. (박엽이) 이이첨과 동석했을 때 불효자를 장살하면서 “세상에 이이첨 외에 또 어미가 없는 자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이첨이 얼굴색이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또 반정을 할 때 조금의 누락도 없이 군수품을 조달했는데, 그 안에 은비녀 백 개가 있었다. 반정하는 여러 공들이 용도를 몰랐으나 고변이 자주 올라가자 이것을 공중에 뇌물로 썼는데 수요가 딱 맞아서 결국 이것으로 성공할 수 있었으니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흉적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살생을 좋아하여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렸으니 어찌 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완풍군 이서(李曙)와 능천 부원군 구인후(具仁厚)가 모두 (박엽의) 막하에 있었을 때 장형을 받은 원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확실하지 않다.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부터 오랑캐 우두머리의 동정을 잘 알았고 감사가 되어 십년 간 평안도에 있을 때는 변방 밖까지 위세를 떨쳤다.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이 “박엽이 있었다면 우리는 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후금이 (박엽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박엽은) 예전에 “한 시대의 평안감사, 천 년 된 법수교. 아마 달이 뜬 이 밤이, 가련한 밤이 되리라”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 뒤 법수교에서 죽었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시참(詩讖)’이라고 했다. 증조부의 시에서 “법수교 가의 강물이, 오열하며 울음을 삼킨다”하고 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기에 마지막 구를 이렇게 쓴 것이다.¹⁴⁾ (밑줄은 인용자 표시)

13) 朴彌, 『汾西集』 권7, <過平壤法首橋感作>. “法首橋頭水, 嗚嗚咽復吞. 十年寒棗莢, 淚濕舊啼痕.” 註: “指再從兄輝.”

박필주가 이 글에서 강조한 점은 박엽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었다. 박엽은 폐모론을 주장한 이이첨과 거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강상윤리를 어린 무리들과 함께 논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인조반정 때 협조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래서 박엽의 죽음은 이서와 구인후의 개인적 원한에 기인했다는 설이 나돌 정도라는 것이다. 또 박엽은 평안도에 있을 때 후금을 동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후금이 두려워했던 인물이었다는 점, 박엽이 범수교에서 지은 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필주의 이런 발언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엽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후대 야담에서 박엽의 억울한 죽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에 나온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III. 18세기 평안도민이 기억한 박엽의 모습

박엽은 159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1601), 병조정랑(1602), 직강, 해남현감, 평양서윤(1605), 평산부사(1607)를 역임했고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하자 본격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해서 황해 병사(1609), 황주 목사 겸 병마사(1610), 함경남도 병사(1611), 의주부윤(1612), 성천부사(1616)를 거쳐 1618년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중앙관직과 해남현감을 제외하면 박엽의 관직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라는 이른바 ‘서북(西北)’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평양(서윤, 감사), 의주(부윤), 성천(부사)에서 관직을 했던 만큼 평안도와 인연이 많았다. 달리 말하면 이 지역 주민에게

14) 朴弼周, 『黎湖集』 권2, <平壤感懷>. “天設有如此, 人工亦壯哉. 城臨千仞壁, 水遠百尋臺. 突騎至無覺, 元戎表可哀. 千年法首月, 尙說禦虜才.” 自註: “朴監司燁, 卽我曾祖考汾西公之再從兄也. 癸亥反正月初, 以平安監司被誅, 蓋以其爲光海聯袂, 且有寵故也. 其案迥異於大北爾瞻, 嘗爲僮使西下過平壤, 與爾瞻同座, 撲殺一不孝者而曰, 天下除李爾瞻外, 豈更有無母者乎. 爾瞻色青不得發一語, 且於舉義時, 治送軍物百需, 無一遺漏, 其中有銀錢三百, 反正諸公不知所用, 及告變頻上, 則以之行賂於宮中, 恰滿其數, 遂得不敗, 以此見之則可謂之有功, 而與彼凶賊混被誅戮, 是則冤矣. 然其好殺成性正犯嚴母之戒, 雖欲免得乎. 或謂李完豐曙具綾川仁室, 皆經幕裨, 受杖致憾, 以致於此, 不詳是否. 自爲義州府尹時, 能網得虜酋動靜, 以至爲監司, 十年在西, 威讐塞外. 丙子之亂, 虜相謂曰, 朴燁若在, 吾不得來, 可見其爲虜所憚也. 嘗有詩曰, 一代關西伯, 千年法首橋. 只應今夜月, 長作可憐宵. 未幾果受命於法首橋, 世謂之詩讖. 曾考詩所謂法首橋頭水, 嗚嗚咽復吞者, 意卽指此, 故末句云.”

도 박엽은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의주 읍지와 성천 읍지에서도 박엽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읍지에 나타난 박엽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다. 『용만지(龍灣誌)』에서는 박엽이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축성 과정에서 280여 사람이 죽었다는 점과, 특히 자신의 애기(愛妓)와 사통했다고 의심하여 주민 이대현(李大賢)을 옥에 가두었고 가문이 멸족될까 염려한 가족들이 자살을 종용하여 이대현이 결국 옥에서 목을 매고 죽었다는 일화를 제시하여 박엽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¹⁵⁾ 반면 『성천지(成川誌)』에서는 성천부사 박엽이 화재로 전소한 여러 누각을 증건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10개월 안에 여러 누각이 모두 제대로 증건될 수 있었으며 이 공사로 유능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관찰사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¹⁶⁾

서운과 감사를 역임했던 평양의 읍지에는 박엽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 1730년에 간행된 『평양속지(平壤續志)』에는 ‘문담(文談)’과 ‘잡지(雜誌)’ 항목, 신흠(申欽)의 『서창기(西倉記)』에서 언급되었다. 신흠은 박엽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박엽이 평양서운으로 부임할 때 전송하는 서문을 써준 적도 있었다. 『서창기』는 박엽이 평양서운으로 있을 때 평양성 외곽 서쪽 지역에 외서창(外西倉)을 세운 일에 대해 쓴 것이다. 서창 설립은 이 지역 사람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일이었지만 이 당시에 도 상황도 안 좋은데 공사를 과도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때 박엽은 목재는 서낭당 목재를, 기와는 불당의 기와를 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사람들이 서낭당이나 불당의 자재를 쓰는 것을 꺼리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곳의 나무를 뺐다. 이렇게 공사는 5개월 만에 큰 문제 없이 끝났다. 신흠은 이 글에서 박엽이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606년 당시 자신이 영위사(迎

15) 『龍灣誌』(1849)〔조선시대 사찬읍지〕 60. “○朴燁亦以本道監司賜死。燁爲本府尹時，監築州城，所殺役丁二百八十餘人。本府人李大賢亦以無辜死。○李大賢勇力絶人重然諾。中朝人鄭奇男壬辰以援兵來見大賢，結爲死友。府尹朴燁愛妓如琴，與大賢換騎而行，疑其有私重棍繫獄，大賢之父兄宗族曰，爾若不死，宗族殆無類。大賢噓唏曰，無罪就死雖可悲，豈以一人之故，累及宗族乎，遂縊死獄中。鄭奇男往哭曰，朝鮮之李大賢中原之鄭奇男，旣以意氣相托，君死非命，吾豈獨生，自勿死。”

16) 『成川誌』(1690, 규장각 소장본(想白古 915.18-Se65)). “朴燁萬曆丙辰來，當降仙樓灰燼之餘，許多臺觀一時重建，雖不無役夫之死亡，公私之凋瘵，而十朔之內三百餘架樓閣玲瓏輪奐，微斯人孰能致此。初以定州築城之力，旣加嘉義，又以仙樓重建之功，俄陞資憲，仍除本道監司。”

慰使)로 의주에 가는 도중에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박엽의 평판이 좋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답’에는 박엽의 범수교 시를 수록하고 이것이 시참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일에 대해 “박엽의 위세가 관서 지방을 진동하였고 의기는 웅장하여 문장으로 표현된 것은 그의 질탕하고 변화한 모습과 어울렸지만 시는 처량하고 가련하며 만가(挽歌) 풍이라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했다.”고 논평했다. ‘잡지’에는 가도(槓島)에 양씨(梁氏) 성을 가진 관상가가 있었는데 박엽이 “땀 마음을 품고 있는 것[潛懷異圖]”을 알아채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칼이 목에 있다[莫浪殺, 劍在頸]” 여섯 글자를 써주자 박엽이 매우 화를 내어 끌어내게 했다는 일화와, 박엽에게 좋지 않은 내용을 알려 준 양씨가 어린 선우협(鮮于浹)을 보고는 장차 제사를 받을 사람이니 잘 대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 박엽은 처형되고 선우협은 사당에 제향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므로 양씨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이다. 『평양속지』에는 앞에 제시한 유형 중 유형 4)만 들어있다. 『평양속지』는 관찰사가 기획하여 감영에서 간행했으므로 어느 정도 정제된 편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평양 사인 김점(金漸, 1695~1775)이 편찬한 시화집 『서경시화(西京詩話)』(1728년 1차 편찬, 1733년 증보)와 평안도 인물 일화집 『칠옹냉설(漆翁冷屑)』에는¹⁷⁾ 당시 평안도 지역에 전하던 박엽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서경시화』에는 범수교 시와 함께 시와 관련된 또 다른 일화가 있다. 평양 주민 박위(朴蔭)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자 관찰사로 있던 박엽이 그를 잡아 오게 해서 『시경』의 한 구절을 내어 화답하라고 했는데 박위가 민첩하게 잘 대응했다는 내용과, 오준망(吳峻望)이 쓴 구절 “크게 취해 산으로 돌아가니 달이 지려 한다[大醉還山月欲低]”를 보고 관찰사 박엽이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준망이 얼마 뒤에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 두 일화는 박엽이 시를 좋아하고 시를 잘 읽어내는 능

17) 『칠옹냉설』은 현재까지 2종의 이본이 있다. 『서경시화』와 『칠옹냉설』이 합본된 정병욱 교수 소장본이 있고(조종업 편, 『(수정증보)한국시화총편』 11, 태학사, 1997) 짧은 분량의 『칠옹냉설』이 따로 전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병욱 교수 소장본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국편본)”으로 표시하였다. 이 두 본은 분량과 일화에서 차이가 있으며 필사시기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참 자체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이 자료만 보면 박엽이 자신의 미래를 예감하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황윤석의 기록에서 박엽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계해년 봄에 박엽이 자신의 막료들에게 자신의 운이 다했으니 지금은 즐겁게 지낼 뿐이며 그러다 대보름날 그 시를 지었을 때 막료들이 왜 이렇게 상스럽지 못한 시어를 쓰느냐고 하자 박엽이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¹⁸⁾ 이 일화는 법수교 시가 처음에는 법수교 근처에서 죽었거나 화려한 감사 시절에 비에 섞인 시를 지은 것 때문에 ‘시참’으로 인식되었지만, 후대에는 박엽에게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유형 5)는 『칠웅냉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후대에 가면 후금의 첩자로 용골대와 마부대가 언급되지만 『칠웅냉설』에서는 ‘청 태종 홍타이지’로 등장했다.

박엽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언제나 적의 동태를 탐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하루는 군졸에게 소주와 유밀과, 쇠고기 육포를 주면서 “북쪽 담장 밖에 갈 옷을 입고 쥐가죽 목도리와 해진 샷갓을 쓴 사람이 있을 테니 이것을 주라”고 하였다. 군졸이 알려준 대로 갔더니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보내준 것이냐고 물길래 관찰사가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사람은 물건을 받자마자 곧바로 쏜살같이 가버렸다. 그 사람이 바로 청 태종 홍타이지이다.¹⁹⁾

자신의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후금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능력으로 확장된 것인데, 유형 5)에서 청병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때 수량이 딱 맞았다는 이야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야담에서는 박엽의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지만 박엽과 동시대 인물의 기록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강홍립(姜弘立)의 종사관이었던 이민환

18) 黃胤錫, 『頤齋亂藁』 1770년 6월 5일 일기.

19) 『漆翁冷屑』 『附錄』, “朴燁按箕常有耳目探虜情. 一日勅隸卒授以燒酒蜜果牛脯而語之曰, 北牆外有一人衣葛而項鼠皮戴蔽陽者, 以此付之. 隸卒如教而往, 果得其人而與之, 其人問誰送之, 答以布政司所送, 其人遽受如飛而去. 此乃清弘太始也.” 이 글에서는 해당 자료를 번역할 때 이미 출판된 번역서를 참조했다. 김점, 장유승 옮김, 『서경시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李民寔)은 1619년 사르후 전투(심하 전투)에서 군량이 조달되지 않아 군졸들이 굶주리자 관항사(管餉使) 박엽을 책망한다. 이 일 때문에 박엽이 이민환에게 사감을 가지게 되어 나중에 이민환을 무고했다는 것이다.²⁰⁾ 이민환 관련 내용은 이후 성해응(成海應)이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²¹⁾ 곧 이것은 반대되는 이야기에서 군량 조달이라는 모티브를 변용해서 쓴 예라고 할 수 있다.

『칠용냉설』에는 양씨 관상가와 범수교 시 외에도 몇 개의 일화가 더 전하고 있다. 박엽이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蓄無君之心]” 전장복(全長福)을 회유하려다가 갈등을 빚는데 어느 날 주사위 시험으로 전장복을 위협하자 전장복이 피를 내어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知微】와 말 타는 것을 금지한 상황에서 어떤 선비가 장림(長林)을 말을 타고 지나자 끌고 왔는데 그 선비가 재치로 화를 모면한 이야기【傲誕】, 박엽에게 감영의 아전 오광례(吳光禮)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는 이야기, 박엽이 능라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성천(成川)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게 한 이야기【附錄】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칠용냉설』에 수록된 박엽의 모습은 대체로 부정적이나 우호적인 내용도 있다. 박엽은 지혜로운 평양민 전장복을 회유할 수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는 부정적 인물형이지만, 감영 아전 오광례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아도 ‘천 명을 채울 것처럼’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박엽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 말을 타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불합리해도 막상 상대방이 강하게 또는 재기 넘치게 대응하면 박엽은 기특하게 여기면서 용서했다.²²⁾ 박엽을 설명할 때 “만 마음을 품고 있다[潛懷異圖]”,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가졌다” 같은 표현을 쓰지만 이런 내용의 서사를 보여주는 일화는 없다.²³⁾

20) 李民寔, 『紫巖集』 권7 附錄, 「嘉善大夫刑曹參判紫巖李公行狀」.

21)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15冊, 「題朴燁詩後」. “然深河之役, 糧餉自關西輸致而不能給, 士乃三日不食, 掘胡中窟所藏穀及牛畜而食之. 事在李民寔日記中, 孰謂燁有材能哉. 然則關西十年, 徒以刑殺立威, 而談者惜燁徑死, 不能禦胡, 殆過論也.”

22) 李宜顯의 『雲陽漫錄』(『陶谷集』 권27)에 자신의 증조부 李後天이 평양서윤이었을 때 9세였던 증조 李峻岳의 일화를 소개했는데 유사한 화소의 이야기이다. 이준악이 어린아이와 대동문투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엽이 오는 바람에 그 어린 아이가 누각에서 내려오지 못했는데 박엽이 참형을 명했다. 이준악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자 박엽이 기특하게 여기고 용서해주었다는 내용이다.

23) 이상 제시한 일화는 정병욱 교수 소장본(『한국시화총편』 수록본) 『칠용냉설』에 수록된 것

그런데 김점의 친필본이거나 최소한 김점이 쓴 것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 ‘국편본’ 『칠용냉설』에는²⁴⁾ 두 편의 일화가 더 추가되어 있다.

전장복은 박엽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위기를 몇 차례 겪었다. (그래도) 박엽이 처형되었을 때 전장복은 시신을 거두려고 했는데 원한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시신을 탈취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장복이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다.²⁵⁾

박엽에게는 점을 보는 노파가 있어 매번 길흉을 알려주었는데 “천 명(千人)을 살리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다. 박엽은 살리라는 말을 죽이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많이 처형했다. 그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귀를 만졌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은 그 동작을 보고 자신이 죽을지 살지를 알아차렸다.²⁶⁾

위의 두 일화는 박엽에 대한 평안도 또는 최소한 평양 지역민의 이중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박엽은 형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지역민이 원망하는 인물이었다. 전장복은 박엽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위협에 처했는데, 위의 일화를 보면 박엽이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위의 전장복 일화에서는 박엽이 죽은 뒤 시신을 난도질하고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드러나 있다. 전장복은 지혜롭지만 동시에 께잡은 사람이어서 자신을 괴롭히던 박엽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행동이 미담이 되었다. 두 번째 일화는 앞의 유형 7) ‘천 명(千人)을 죽이라는

이다. 이 필사본은 여러 항목으로 유형을 분류한 뒤 해당 내용에 따라 일화들을 배치하였다.

24) 국편본에는 “余外曾祖西亭田公諱闢” 구절이 있기 때문에 김점의 필체이거나 김점이 쓴 것을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은주의 『평양인의 자기 인식』(『한국문화』 9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3~4면 각주1) 참조) 일화집은 성격상 후대에 내용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정병욱 교수 소장본 『칠용냉설』 전체가 김점이 편찬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편본은 김점이 직접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김점이 『서경시화』를 편찬하고 증보한 시점이 각각 1728년, 1733년이며 그전에 평양과 평안도 일대를 다니면서 내용을 채집한 것으로 볼 때 『칠용냉설』의 일화도 그때 채집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漆翁冷屑』(국편본). “全長福爲朴燁所作, 阨危者數矣. 及燁誅死, 長福欲收尸, 竟爲諸仇家所奪. 然人亦以此義之.”

26) 『漆翁冷屑』(국편본). “朴燁有鬼媼, 每告其吉凶, 若曰活千人則王. 朴誤認活爲殺, 用此刑戮枉濫. 將殺人必拉其耳, 吏民候之判其生死.”

예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일화는 박엽이 지역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다는 점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 행동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박엽의 학정은 예언 때문인데 문제는 예언 자체가 아니라 박엽의 오인에서 비롯되었다. '친인'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이 박엽이 죽었다는 일화가 박엽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미로, 또 박엽을 불운한 비극적 영웅으로 탈바꿈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이 일화는 박엽의 학정이 원래 성품이 잔혹해서가 아니라 오해에서 기인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해석인 것이다. 평안도 지역민들이 박엽을 미워하면서도 동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 시기 『평양속지』나 『서경시화』, 『칠용냉설』에서 제시했듯이 문과급제자인 박엽은 문인의 재능을 보였고 감사로서 위압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자랑하는 장수의 형상을 가진 적이 없다. 유형 5)처럼 후대에는 박엽이 누르하치와 무술을 겨뤄 이긴다거나 후금이 박엽을 두려워해서 박엽의 처형 소식을 들은 뒤에야 침공했다는 내용이 증폭되어 나타났지만 이 시기 평양 또는 평안도 자료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IV. 박엽의 사당으로 본 평안도민의 시선

박엽은 실제로는 6년을 역임했음에도 “십 년”으로 여러 차례 표현될 정도로 아주 긴 기간 동안 관찰사로 있었고 광해군과 인척 관계로 있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다. 동시에 그는 인조반정 직후 한양으로 압송되지도 않고 즉시 임소에서 처형되어 지역민들이 실세(失勢)를 체감할 수 있었던 전무후무한 관찰사였다. 야담을 비롯하여 당시 기록에서도 평안도민들이 박엽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박엽이 처형되자 매우 기뻐했다는 기록도 전한다.²⁷⁾ 흥미로운 점은 18세기에 들어서면 박엽의 초상화를 안치한 사당에서 마을의 부녀자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27) 李元翼, 『梧里集』 별집 권1, 『領相時引見奏事-癸亥三月二十二日』. “承至言亦似有理, 民心鎮定爲急, 汝稷曰, 朴燁既已梟示, 關西道人, 無不快樂, 一道人心已定云矣. 公曰, 小臣於關西, 曾爲守令, 復任方伯, 熟語其民情久矣. 朴燁貪暴殘虐, 無所不至, 致百姓怨叛, 今已梟示, 一道稱快, 民情大可見. 西方之兵, 自此庶可以調用矣. 上曰, 朴燁雖殘暴, 而急急誅殺, 則國體不當, 然固有所不得已而誅之耳.”

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사람들에게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해도 처형 당시 원한을 품은 많은 주민들이 박엽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전언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박엽의 시신을 탈취해서 훼손할 정도로 깊은 원한을 가졌던 이 지역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것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허구적이고 신화화된 박엽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지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박엽의 사당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던 것일까.

박필주는 성천의 강선루 아래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자주(自註)에서 박엽의 사당을 언급하면서 “강 너머 기슭의 산 위에 음사(淫祠)가 있는데 박 감사의 초상화가 안치되어 있다. 마을 부녀자들이 매일 돼지고기와 양고기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더욱 성대해졌기 때문에 쓴다.”고 했다.²⁸⁾ 앞서 언급했듯이 박필주가 이 시를 지은 시점은 1735년이였다. 박엽의 초상과 사당에 대해서는 성해응(成海應, 1760~1839)도 기록을 남겼다. “개성 덕물산에 있는 최영의 사당처럼 평양민들이 지금까지 매우 공경스럽게 박엽을 위해 제사 지낸다. 그의 초상화가 후손에게 있는데 키가 작고 얼굴 모습이 아녀자 같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서 감히 마주볼 수 없다”²⁹⁾는 내용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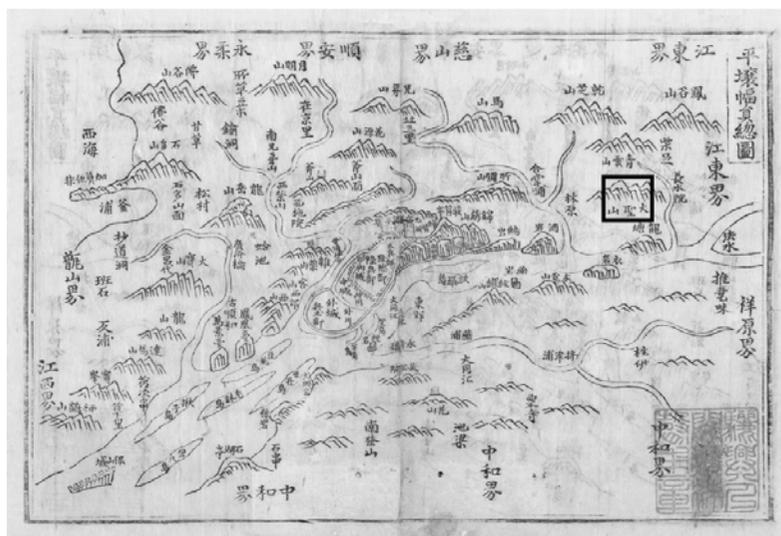
1783년에 평양을 갔던 심노승(沈魯崇, 1762~1837)이 쓴 글은 더욱 흥미롭다. 심노승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평양에 있는 박엽 사당에 대한 기문을 썼다. 박필주가 말한 성천의 박엽 사당이 이 사당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노승의 글에서 박엽 사당은 평양의 대성산에 있었다. 당시 평양에서 잠시 체류한 심노승이 쓴 기문 『대성산신묘기(帶星山神廟記)』의 내용 대부분은 지역민의 전언을 옮긴 것이다. 이 글은 평양부 장경문 동쪽 20리 대성산에 감사 박엽의 신묘(神廟)가 있고 사당 안에는 박엽의 초상화가 있으며 이곳에 여러 곳의 부녀자들이 향과 과일을 들고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28) 朴弼周, 『黎湖集』 권2, <成川降仙樓下泛舟>. “容與清波戲畫船, 雲根錯落列山前. 千尋直下深無地, 一竇潛通小有天. 巫峽強名何意緒, 東王事迹一茫然. 堪憐枉死關西伯, 羽叢祠結鬼緣.” 주: “越岸山上有淫祠, 安朴監司畫像. 村里婦女日設猪羊之享, 至今愈盛故云.”

29)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권61, 『朴燁像』. “朴曄光海友婿也. 癸亥之反正, 曄預聞, 而金自點挾宿怨而殺之, 且忌其才也. 平壤人至今祀曄甚敬, 如德岫山崔營祠. 其像在後孫, 貌短小, 美好如婦人, 精彩逼目, 不可狎視. 其家每當曝曬, 子孫婢使, 輒有痛者.”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 글에서 대성산은 “平壤府長慶門之東二十里帶星山”으로 나오는데 평양에서 대성산은 보통 ‘大城山’, ‘大聖山’으로 표기한다. 1590년 평양 읍지에 따르면 대성산은 북쪽 20리에 있고 ‘구룡산(九龍山)’, ‘노양산(魯陽山)’이라고 하는데 1892년 읍지에는 대성산이 동쪽 30리에 있다고 했다. 1730년에 간행된 『평양속지』의 ‘평양폭원총도(平壤幅員總圖)’에서 위치를 확인해보면, 대성산은 평양성 외곽 북동쪽에 있는, 평양성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다. 심노승은 박엽의 초상화에 대해 “박엽의 키는 평균 이하이고 외모는 예쁜 여자처럼 생겼고 눈동자는 거북이 같다. 귀는 옥처럼 희고 눈썹은 검처럼 곧추서 있으며 조복을 입고 관을 쓴 채 앉아 있는데, 자리에는 보검 하나, 비단 깃발 하나, 옥경(玉槩) 하나, 오래된 동로(銅鑪) 하나가 그려져 있다.”고³⁰⁾ 썼다. 앞에 언급한 박필주와 성해응의 언급까지 종합해 보면, 박



『평양속지』(1730)의 ‘평양폭원총도’

30) 沈魯崇, 『孝田散稿』 「帶星山神廟記」. “堂中揭燁正面眞一本, 丈不及中人. 貌如美婦, 眼如靈龜, 耳白如玉, 眉豎如劍, 朝服冠而坐, 座有寶劍一, 織錦旌一, 玉槩一, 古銅鑪一.”

엽의 사당에는 초상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며 초상화에 그려진 박엽의 모습은 키가 작고 여자 같이 생겼다는 것이다. 심소송의 『대성산신묘기』에 따르면 박엽의 신묘는 어떤 여자의 신내림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박엽이 죽었을 때 관서에 흉년이 들었다. 하루는 강서현 주민 중 어떤 여자가 병이 위독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박엽이다. 평안도 지역 백성들을 폭압으로 다스렸으니 어찌 명성을 바라겠느냐. 축나라를 다스린 제갈공명을 본받고 싶었으나 재주도, 역량도 부족해서 끝내는 죽고 말았으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슬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껏 원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떠도는 혼백은 평안도 지역을 떠나지 못해 진실로 강산과 누대, 성곽, 마을을 돌아보며 배회하고 있으니 이 큰 세상에서도 돌아갈 곳이 없고 하루라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 나와 매우 흡사한 초상화가 평양부 대성산에 있으니 나를 제향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돈을 내어 사당을 만들었다.

아아, 박엽은 대단한 남자이다. 누르하치(奴汗)가 백만 군사로 요동과 심양에서 상국의 동향을 보면서 여러 진을 호령할 때 그 기세가 천하를 진동할 정도였지만 박엽은 날마다 선화당에서 담소하였다. 관서 지역에서는 남자는 농사 짓고 여자는 베를 짜고 개가 짓고 닭이 우는 평온한 삶이 유지되었고 위세를 떨쳤기에 누르하치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압록강을 배회하면서 감히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박엽은 불행하고 불우하여 당시 윗사람들은 그를 처형했고 아랫사람들은 재물과 보화로 박엽을 섬겼다. 관서 지방은 예로부터 금과 은이 풍부해 박엽은 이것을 수레로 보내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였으니 그 죄는 진실로 크다.

그러나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인륜을 저버렸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박엽의 사후 수십 년 뒤 효종대왕이 일통의 의리로 오랑캐를 정벌하는 계획을 세워 의로운 군사를 규합하여 한 번 군사를 내어 공훈을 세울 듯하였는데 그때 만약 박엽이 살아있었다더라면 분명히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노한 기세로 나와 산발한 채로 연운(燕雲)과 계수(薊樹) 사이를 통곡하면서 수천 군사를 데리고 깊이 흉노로 들어가 천하 후세에 위업을 세우겠다고 청했을 것이니 이것은 공언만은 아닐 것이다. 운명과 때가 어긋나 명성도 떨어지고 몸도 죽는 처지가 되어 구구하게 아녀자의 입을 빌려 자신의 평생의 슬픔을 말했고 마치 여자와 아이들 이 죄를 자복하는 것처럼 슬프게 말하면서 사당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평안도 사람들이 나에게 기문을 요청하였는데 나는 그

의 불행하고도 불우한 삶이 너무도 슬퍼 마침내 사당을 세운 전말을 쓴다.³¹⁾ (단락 구분 및 밑줄은 인용자 표시)

박엽은 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자신이 혼백이 되어서도 평안도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성산에 자신의 초상화가 있으니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달라는 것이었다. 초상화를 안치한 사당이라는 점에서 박필주가 말한 것과 상통하지만, 박필주의 글에서는 사당의 위치가 ‘越岸山’으로 나오며 이 단어를 강 너머의 산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평양의 대성산과 성천이 멀기 때문에 이 구절로만 보면 박필주가 말한 서당이 평양 대성산의 사당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박필주의 언급으로 볼 때 박엽의 사당이 있었던 시기는 1735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심노승 글은 박엽이 죽자 그 응보로 관서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 대목은 박엽의 혼백이 평안도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 후반부와 조응한다. 전하는 이야기에서 묘사한 박엽의 최후는 매우 참혹하다. 17세기 전반기의 조경남(趙慶男)이 쓴 『속잡록(續雜錄)』을 보면 박엽은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평양의 어느 사저에서 처형되었다.³²⁾ 박엽을 모셨던 기생들은 박엽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시시덕거렸으며 죽은 뒤에는 사람들이 관을 쪼개고 시신을 끌어내어 마디마디 잘랐고, 겨우

31) 沈魯崇, 『孝田散稿』 「帶星山神廟記」. “始燁之亡, 關西不熟. 一日江西縣民女病虐將死, 忽作而語其父曰, 我朴燁也. 治西民以暴厲, 名豈志哉! 效孔明治蜀, 才疎力短, 終以身殉, 知者悲之, 不知者至今怨罵, 無怪也. 悠悠魂魄不離西土, 誠爲江山樓臺城郭閭閻, 徘徊瞻顧, 而如窮無歸天下之大無所容於一日也. 吾書眞甚肖在平壤府帶星山宜享我. 於是民聚往發而得之仍廟焉. 嗟呼! 燁奇男子耳. 奴汗以百萬之衆據遼瀋睥睨上國叱罵諸鎮, 其勢震動天下. 燁且日日談笑於黃堂綠簾之中, 關以西, 夫耕婦織犬吠雞鳴, 風聲威烈, 使奴汗不能一日安睡, 徘徊於鴨水之上, 不敢進一步, 何其壯哉. 燁固不幸而不遇, 當時上以鼎鑊待之, 下以貨寶事之. 關西古多金銀, 燁輦輸以固位, 罪固多矣. 其視在朝之人爲滅倫之論, 有間也. 燁死數十年之後, 孝宗大王, 以一統之義, 奮九伐之計, 糾合義旅, 若可以一戎集勦, 使燁而在者, 必先扼腕而怒噓氣而歎, 散髮痛哭於燕雲薊樹之間, 請借數千兵深入匈奴, 樹風聲於天下後世, 不但空言而止耳. 命與時舛, 名敗身戮, 區區借弱女子之口, 自道平生哀傷惻怛如婦人孺子, 引罪自服, 所願得爲叢祠之主, 又何其哀哉. 西人請余爲記, 余固悲其不幸而不遇, 遂書立廟始末.” 번역문을 고쳐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32) 『속잡록』에서는 자신이 죽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我別無大罪, 未知此何事也.)는 반응이었고 『일지록(日知錄)』은 이유를 묻다가 반정 소식을 듣고 저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몰아간 것을 탄식했다(某人等主事而置此我於此耶.).

남은 찢조각조차도 황주 백성들이 빼앗아 강에 던져서 박엽의 가족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강에 던진 궤는 신임 감사 김신국(金薰國)이 박엽의 뼈 약간을 수습하여 유족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데, 『연려실기술』에 함께 수록된 『일월록(日月錄)』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김신국이 백성들이 보복하도록 방치해서 조정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차이가 있다. 박엽의 시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칠용냉설』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다. 박엽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진장복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평가받았으나 박엽의 시신이 훼손되고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다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이 기문에서는 윗사람들이 그를 처형했고 아랫사람들이 재물과 보화로 박엽을 섬겨 박엽이 탐욕을 부리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으므로 박엽의 생애를 “불행하고 불우하다”고 요약했지만 이런 서술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박엽은 광해군대에 승승장구하여 드물게 6년 간이나 관찰사 자리에 있었고, 관찰사로 재임했을 당시 박엽의 평판이 날조된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 측근세력들이 대거 숙청당했기 때문에 박엽만 불운하게 처형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광해군과 가까운 관계였고 장기간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던 박엽이 유독 후대에 미화된 계기는 무엇일까. 한때 서슬 퍼런 박엽이 이제는 아녀자의 입을 빌려 사당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정도의 소원을 말하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박엽이 객사를 했기 때문이다. 객사하고 시신을 수습 못 해서 혼령이 그 지역을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는 특이한 이야기는 아니다. 사행 갔던 사람들의 전언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컨대 18세기 김용경(金龍慶)이라는 사람은 안주 객사에서 전 안주목사 안규(安圭)의 혼이 나타나 중국에 가면 아플 예정이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고 귀국길에 전 판윤 이광하(李光夏)의 혼이 풍운현에 이를 때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나중에 풍운현에서 병사했다. 안규의 혼은 “관아에서 죽어 혼이 남아 있다”고 했고 이광하는 “사신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죽어 혼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객사하면 혼과 백이 떠돌면서 (혼이) 몸과 백을 따라 함께 돌아갈 수 없게 된다(客死者, 魂魄飄泊, 不能隨體魄同歸)”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³³⁾ 전하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박엽은 객사만 한 것이 아니라 반장(返葬)

도 할 수 없었다.³⁴⁾ 지역민들이 시신을 난도질했고 탈취했기 때문에 박엽은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박엽의 혼령이 평안도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해서 볼 자료가 일제 강점기 때 전설을 정리한 기록이다. 사사키 고로(佐々木五郎)의 『박대감의 사당(朴大監の祠堂)』에 나오는 박엽의 모습은 전술한 내용과는 양상이 다르다. 일단 사당의 위치가 평안도가 아니라 황해도 수안군 대성면(大城面) 위라리(位羅里) 북쪽에 있는 숲이다. 전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조 때 평안감사 박엽이 급사해서 서울로 유해를 모시고 가던 길에 중화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관이 움직이지 않자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고 여겨서 그리게 한 초상화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당시 위라리의 진(鎭)에는 박엽을 흠모하던 만호(萬戶)가 있었는데 그 사람 꿈에 박엽이 나타나 곧 만나러 가겠다고 알려 주었다. 날아가던 초상화는 위라리에서 떨어졌고 그곳에 사당을 건립해서 박엽을 제향했다는 내용이다.³⁵⁾ 이 이야기는 박엽의 실제 최후와도 맞지 않으며, 어느덧 박엽이 처형된 것이 아니라 급사했으며 학정을 일삼던 부정적인 인물에서 흠모할 만한 긍정적인 인물로 윤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전설과 비슷한 서사이지만 장소와 인물이 다른 또 다른 전설도 전한다. 황후가 죽은 뒤 황후의 초상화가 바람에 날려 평양 대성산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대성산 앞을 지나다가 말발굽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초상화가 다시 그 사람 앞에 떨어지자 그 사람은 화상을 나뭇가지에 걸고 말발굽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빌었고 소원은 이루어졌다.

33) 黃胤錫, 『頤齋亂藁』, 1769년 12월 1일 일기.

34) 『英祖實錄』 1728년 5월 2일 기사. 이인좌의 난과 관련되어 불잡힌 洪啓一은 공초에서 1727년 9월에 積城을 지나다가 흉적 李有翼이 박엽의 무덤에 들러 절하고 평생 태산처럼 우러러 본다는 말을 듣고 이유익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承政院日記』 1728년 7월 13일 기사에서는 영조가 흥계일을 두고 “且虛拜於朴燁之墓者”인 이유익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박엽의 묘는 假墓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洪直弼(1776~1852)이 쓴 『朴燁傳』(『梅山集』 권51)에는 “朝廷聞之, 亦罪壽國而許其歸葬”라는 구절이 나오므로 자료들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흥작필의 이 글이 사실 그대로를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23년 11월에 김신국이 처벌되고 파직된 적이 있지만 그 이유는 평양성 방비와 관련된 장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35) 佐々木五郎, 『平壤附近の傳説と昔話』(2), 『旅と伝説』, 14권 9호, 1941. 9.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편, 『구비문학 관련 자료집-한국어·일본어잡지편 3』, 민속원, 2007 수록)

그래서 이후 소원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빌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초상화를 모시는 신사당(神祠堂)을 지었다는 내용이다.³⁶⁾ 이 이야기들은 약간씩 다른 점이 있지만 모두 초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황후를 언급한 이야기의 경우 ‘황후’를 박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앞에서 박엽의 초상화를 언급한 여러 글에서 초상화의 박엽이 몸집이 작고 여자 같이 생겼다는 설명을 떠올린다면 설명은 누락되었지만 초상화의 모습 때문에 박엽을 황후라고 짐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자료에서 ‘초상화가 날아가 떨어진다’는 모티프는 용인에 있는 포은사당(圃隱祠堂)의 전설처럼 사당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동원한 수사일 것이다. 또 『대성산신묘기』에 나오는 꿈이라는 모티프도 평양에 조성한 관우묘인 서묘(西廟)의 건립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1875년에 양헌주(梁憲柱)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약을 팔고 돌아왔는데 관우 소상(塑像)이 짐꾸러미에 들어있었고, 6년 뒤 1880년에 이 소상을 서울의 남묘(南廟)에 옮기려고 했는데 꿈에 관우가 나타나 “나는 평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여 사당을 짓고 소상을 안치했다. 이렇게 꿈에서 관우가 평양에 남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평안도 백성의 복(西民之福)”으로 기뻐했던 것과는³⁷⁾ 달리, 박엽은 병든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 이곳을 떠나지 못하니 제사라도 지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스간의 연민과 미안한 마음으로 사당을 건립했을 것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 『평양부』에는 『수서(隋書)]를 인용하여 “귀신을 공경하고 음사(淫祠)가 많다”고 했는데, 캐나다 선교사인 J.S.게일(1863~1937)의 언급을 보면³⁸⁾ 복을 빌며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음사’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다. 그런데 평양에는 이와는 별개로 평안감사의 생사당(生祠堂)을 건립하는 관습이 따로 있었다. 1592년에 전란 수습을 잘했다는 이유로 이원익의 생사당이 만들어졌고 19세기로 접어들면 적지 않은 감사들의

36) 1932년 7월 대동군 시족면 노산리(魯山里) 金炳善 구술.(임석재 편, 『임석재전집 3-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88.)

37) 南廷哲 編, 『平壤續誌』 上.

38) J.S.게일, 신복룡 역주,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158면. “평양(平壤)은 조선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도시로 간주되어 왔다. 평양은 언제나 최악으로 둘러싸인 세상과 같았다. 신을 섬기는 데에서도 평양은 우상 숭배에 심취한 가장 나쁜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도와 참회와 찬송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생사당이 건립되지만 박엽은 생사당에 모셔지지 않았다. 박엽의 사당은 평양성 안이 아니라 외곽에 있었고 이 점으로 볼 때 지역민들에게 박엽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감사로서의 치적과 연민은 별개의 문제였다. 곧 이것은 민간에서 박엽이 관찰사로 있었을 때 후금이 박엽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뉜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나 소망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뜻이다. 박엽의 전쟁 억제력을 증명할 직접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병자호란 이후 돌이켜보니 박엽이 관찰사로 있었을 때에는 후금이 쳐들어온 적이 없다는 인식에 기초했을 수도 있고 박엽에게 동정적인 사람들이 박엽을 비호하기 위해 마련한 논리일 수도 있다. 곧 그 당시 사람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는 면에 착안해서 박엽의 능력을 신비화하는 야담들이 재생산되어 후금에서 박엽이 있었기 때문에 침입하지 못했거나 박엽이 후금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또는 어떤 기인이 박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탄식을 했다는³⁹⁾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유형 7)에서 박엽을 죽음에 이르게 한 ‘천인’을 천 명이 아닌 특정한 누군가로 지목 하면서 직접적으로 형 집행에 관여한 구인후 외에 김자점을 거명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자점은 역관 정명수(鄭命壽)와 이형장(李馨長)을 통해 북벌론을 청나라에 밀고한 역적이었기 때문에⁴⁰⁾ 민간에서는 친청과 김자점이 박엽을 미워했으므로 역으로 박엽이 살아있었다면 북벌론의 기수가 되었으리라는 발상이 등장했다. 박엽의 사당은 단순히 부녀자들이 복을 빌러 제사 지내는 ‘음사’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18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 박엽의 사당을 남한산성에 있는 이서(李曙) 장군의 사당에 비견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39) 朴弼周, 『黎湖集』 권2, <平壤感懷>의 주. “自爲義州府尹時, 能網得虜酋動靜, 以至爲監司. 十年在西, 威讐塞外, 丙子之亂, 虜相謂曰, 朴燁若在, 吾不得來, 可見其爲虜所憚也.”; 洪直弼, 『梅山集』 권51, 『朴燁傳』. “壬戌建虜將謀東搶, 屯兵於江北, 燁亦擁兵而前. 虜問知爲燁, 乃曰吾爲遊獵而至耳, 遂引去. 神於譏詞, 虜動靜虛實, 無不洞曉, 常若目擊. 或潛取虜酋紅兜, 飾金而還之, 虜以爲神.”; 洪直弼, 『梅山集』 권52, 『雜錄』. “仁祖之世, 有蔣姓人通奇門遁甲之術, 隱于市廛, 爲人傭賃. 聞朝廷殺朴燁, 長數不已. 及丙子率市廛子弟當厚於己者, 避兵於鞍峴, 而賊不敢近. 金汗亦知其非常人, 餽之以物云.”

40) 成海應, 『研經齋全集』 外集 권61, 『朴燁像』. “癸亥之反正, 擘預聞, 而金自點狹宿怨而殺之, 且忌其才也.”

주상(영조)이 말씀하시기를, “(전략) 내가 남한산성에 갔을 때, 이서를 제사지내는 성황당을 보았는데 이 또한 기이하다” 하니, 홍상한이 이르기를 “평안도 지방에도 또한 박엽의 사당이 있어 백성들이 모두 제사를 지냅니다. 남한산성에서 이서를 제사지내는 것과 흡사합니다.”라고 하였다.⁴¹⁾

박엽의 무위(武威)는 처형 이후 전란을 겪으면서 민간에서 박엽은 후금이 두려워하던 사람이라는 상상력과 사당의 건립 이후 산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결합되면서 추가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이서는 백제의 시조 온조(溫祚)의 사당인 숭렬전(崇烈殿)에 배향되었는데, 이서의 배향에 대해서는 병자호란 중 인조의 꿈에 온조왕이 나타나서 이서 장군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남한산성의 수어사였고 축성에 공을 세운 이서에게 제사지내는 것과 박엽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흡사하다는 말은 박엽이 지역민에게 평안도의 수호신으로 거듭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엽의 전쟁 역제력은 미완의 가능성으로 남아 강한 무인(武人)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⁴²⁾ 유형 5)처럼 밤에 누르하치와 검술로 대결해서 이겼고 이들 군사가 애걸을 한 뒤에야 무사히 보내준다는 비현실적이고 신화화된 허구담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인조반정 직후 처형된 박엽이 후대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

41) 『承政院日記』, 1754년 6월 13일 기사. “上曰, (전략) 予往南漢時, 見李曙之神祀於城隍, 此亦異矣. 象漢曰, 西路亦有林擘祠, 民皆祀之. 此與南漢之祀李曙, 相似矣.” 앞서 언급했듯이 성해응은 덕물산의 최영 장군의 사당처럼 평양인들이 박엽의 사당에 매우 공경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순직했다는 이서와 요동 정벌을 주장한 최영을 박엽과 나란히 놓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42) 朴鍾和가 1963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한 『자고가는 저 구름아』는 전하는 이야기에 기초하여 박엽의 일화를 그려내고 있다. 광해군이 인재를 추천하라는 장면에서 이항복이 박엽을 천거하면서 “박엽은 크나큰 장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올시다. 문과 급제를 하여 문관 출신이올시다마는 기운이 장사요, 智謀가 겸전한 사람이올시다. 보통 인물이 아니올시다. 세종대왕 때 김종서와 임진왜란 때 이순신에 못하지 않은 인물이올시다.”라고 한 말은 후대에 바뀐 박엽의 이미지를 따른 것이다.

모하고 있다는 점과 주로 야담에서 전승된 박엽의 형상이 매우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박엽이 특이한 전승담을 가지게 된 이유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8세기 중후반 이후의 잡록이나 야담에 나타난 박엽의 일화를 1) 유년기 박엽의 비범함, 2) 박엽의 신이한 능력, 3) 처형 당시의 모습, 4) 법수교 시, 5) 후금에서 두려워한 박엽, 6) 계해년(1623) 박엽의 선택, 7) 천인(千人)을 죽이라는 예언, 이렇게 7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 중에는 이전 자료의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8세기 초반에 평안도, 특히 평양 읍지나 평양 사인 김점이 쓴 『서경시화』, 『칠용냉설』에서 후대 이야기의 원형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4) 법수교 시와 시참 외에 특히 관사가 양씨가 칼이 목에 있으니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과 ‘천인(千人)을 살리면 왕이 된다’는 예언을 오인해서 천 명을 죽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형벌을 남용했다는 일화를 주목할 수 있다. 곧 이 두 일화는 유형 7)의 원형이면서 박엽이 잔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하는 시도이다. 후대 자료에 나타난 박엽의 형상은 평안도 지역민의 인식 변화의 결과물이다. 18세기에 지역민이 건립한 박엽의 사당은 처형 직후 지역민이 박엽의 시신을 훼손하여 수습하지 못하게 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심노승의 『대성산신묘기』는 박엽의 객사와 그로 인해 떠도는 혼령의 이미지로 이 시기 지역민이 박엽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연민의 편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박엽의 학정을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엽은 생사당이 아니라 ‘음사’에 모셔졌다. 이렇게 사당이 조성된 이후에는 가너린 모습이었던 박엽이 평안도의 수호신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허구적인 서사 속에서 신이한 능력을 가진 무장의 형상으로 거듭하게 되었다. 박엽이 후대 야담에서 비현실적이고 신이한 인물상으로 변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평안도 지역민이 박엽이 처형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참혹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죄의식과 연민의 감정으로 박엽을 새롭게 바라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漸, 『漆翁冷屑』(조종업 편, 『(수정증보)한국시화총편』 11, 태학사, 1997 수록본)
金漸, 『漆翁冷屑』(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李民寔, 『紫巖集』
朴灑, 『汾西集』
朴燁, 『葯窓遺稿』
朴弼周, 『黎湖集』
成海應, 『研經齋全集』
沈魯崇, 『孝田散稿』
李元翼, 『梧里集』
李宜顯, 『陶谷集』
임석재 편, 『임석재전집 3-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88.
洪萬鍾, 黃胤錫 增補, 『海東異蹟』
洪直弼, 『梅山集』
黃胤錫, 『頤齋亂藁』
佐々木五郎, 『平壤附近の傳説と昔話(2)』, 『旅と伝説』, 14권 9호, 1941. 9.(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편, 『구비문학 관련 자료집-한국어·일본어잡지편(3)』, 민속원, 2007 수록)
『光海君日記』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尹游, 『平壤續志』
『成川誌』
『龍灣誌』

2. 논문

- 김인호, 『고종 순종 시기 恩賜 제도의 운영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5~57면.
서동운, 『1637년 가도 전투를 둘러싼 기억의 전승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2015, 25~53면.
엄태웅, 『박엽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과 그 의미-1623년 처형전후부터 1864년 관직회

- 부전후까지의 기록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45, 우리어문학회, 2013, 137~180면.
- 이승수, 『약창 박엽론: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137~174면.
- _____, 『약창 박엽의 시세계』, 『한국시기문화연구』 43, 한국시기문화학회, 2019, 57~79면.
- 이은주, 『김제학의 관서 죽지사에 나타난 역사 인식』,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021, 271~304면.
- 홍정덕, 『박엽 생애 평가의 재검토』, 『경기향토사학』 2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5, 133~180면.

The Re-Discussion of Memory Transformation on Park Yup

Yi, Eunju

This article attempted to shed light on why Park Yup's story took on a unique aspect in the later unofficial historical tales, following the previous study that Park, a close aide to Gwanhaegun who was executed shortly after King Injo's coup, is transforming from a corrupt official to a positive figure. To this end, Park's anecdotes in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some of which pointed out that they seem to bring partial motifs from the stories of Yoo Mong-in, Park's contemporaries and other official history.

However, the fact that Park's image is changing in anecdotes in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itself cannot explain why this change occurred.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fact that Park served as a governor of Pyongan-do for a long time, he identified anecdotes that seemed to be the prototype of later stories through records in the Pyongyang gazetteer and Pyongyang people Kim Jeom's *Seokyeong Sibun* and *Chilong Naengseol*. The prophecy of killing the "Cheonin" that appears in later anecdotes is the name of the people responsible for Park's death, and Park misunderstood it as a prophecy to kill a thousand people, and *Chilong Naengseol* showed that Park was innocent because he misunderstood the prophecy. Park's tyranny in the Pyongan-do is the object of resentment to the local people who suffered from his tyranny, but paradoxically, it can be thought that the perception of Pyongan-do residents changed after Park's execution.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local people unofficially built Park's shrine in the 18th century. According to Shim No-sung's *Daeseongsan Shinmyoji*(the record of mountain spirit shrine), Park's shrine i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resentful local people dismembered Park's body immediately after his execution and could not recover the body, and after a period of time, showed the guilt and compassion for Park's spirit. However, this cannot be seen as denying Park's tyranny. Park's shrine was a shrine to pray for good fortune, not the official governor's shrine. when Park

became a mountain god, he gained the image of a guardian deity of Pyongan-do, and later gained the image of a warrior figure with mysterious abilities in a fictional narrative. The direct reason why Park turned into an unrealistic and mysterious figure in later anecdote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the local people of Pyongan-do remembering Park's brutal execution and his body being damaged, and looking at him anew with guilt and compassion.

Keywords: Park Yup, the people of Pyongan, memory transformation, Park's shrine, an mysterious ability, a warrior figure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

